

서세동점과 동학의 창도

원재연*

-
1. 머리말 : 서세동점과 반서학적 흐름의 형성
 2. 반서학적 흐름과 동학의 창도
 3. 동학운동의 전개와 서학과의 상호관계
 4. 맺음말 : 서학에서 본 동학의 창도와 운동의 전개과정
-

1. 머리말 : 서세동점과 반서학적 흐름의 형성

동학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서학, 즉 천주교가 영향을 준 측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관련된 다수의 업적이 있다.¹⁾ 본고는 동학과 서학의 상호관계 해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동학사상을 ‘斥邪論’으로 대표되는 반서학적 흐름의 한 분야로 설정하고 그 사상적 계통을 나름대로 해명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衛正斥邪論은 조선왕조 사회의 國是인 性理學의 사상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1) 이원순, <한말의 교안과 교민조약> 《한국천주교회사연구》(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노길명, <개화기의 교회와 국가> 《민족사와 천주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조 광, <조선후기 평등의식의 성장>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0; 박찬식, <구한말 전라도 지도지방의 교안> 《국사관논총》 5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등.

身分制와 地主制 는 중세 조선사회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으로서, 조선의 성리학은 사대부 양반중심의 차별적 신분제를 옹호하면서 지주-소작제에 입각한 농업사회의 봉건적 질서를 주도해가던 조선사회의 주류 이념이었다. 명말청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몰려들기 시작한 서양 해상세력은 19세기 이후에는 월등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각국에 국제무역을 강요하고 그들의 종교인 천주교를 퍼뜨리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폐쇄된 조선사회의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대외개방에 입각한 선진문물 수용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일단 무너졌던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고 성리학에 입각한 통치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려는 보수적 排外主義 사상도 뚜렷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북학파와 근기남인 실학과(성호학과)에 의해서 형성된 對外開放論은 淸에 보내는 정기적 사신단(연행사)을 통해서 청에 도입되고 있던 서구문물(청구문물)을 곧바로 조선사회에도 유포함으로써 18세기 후반 조선에는 북학파와 성호학과 실학자들이 利用厚生論, 通商開放論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西土招聘論 등을 제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²⁾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개방과 외래문화 수용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흐름도 형성되고 있었으니 위정척사론이었다. 위정척사론은 명말청초부터 연행사들이 조선에 가져오는 서양서적과 각종 선진기물의 도입을 거부하고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안 선진문물 수용의 형태로 조선에 수용 보급되던 天主教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억압적 통제를 바탕으로 천주교 세력의 제거(박멸)를 지향하면서, 1784년 조선 천주교회의 탄생과 함께 종래의 단순한 척사론에서 본격적인 斥邪運動으로 발전했다.³⁾ 이들 척사론은 때로 燕行하여 북경에서 서양인 선교사를 만나고 천주당 등 서양문물의 산실들을 구경하면서 배태되기도 했다.

2)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8.

3) 차기진, 《조선후기 서학과 척사론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231 참고.

천주당을 가서 보았다. 천주당은 곧 서양 사람이 창건한 것이다. 서양의 道는 하늘을 섬기는 것을 주장으로 삼아서 비단 儒道와 등을 저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仙, 佛 두 가르침을 배척하고서 스스로 높은 체한다. 康熙가 (천주교에) 몹시 혹하여 天上을 상징하여 이 廟(천주당)를 지은 것이다. 중간에 무너진 것을 옹정이 또 새로 세웠다. 있는 곳이 수십 보밖에 아니 되어서 두루 보기에 힘이 들지 않았으므로 가서 구경했다. 문에 들어서니 문득 단청이 현란한 것을 느낀다. (그 색채가) 너무나 눈부셔서 똑바로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다. 이미 천상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거의 (하늘의) 별[星漢]에 닿을 듯한데, 거기에 日月星辰을 그렸기 때문이다. 벽 위에는 陰鬼를 많이 그려 넣어서 禪房의 十王殿과 같다. 그것을 바라보건대 어둠 칙칙하여, 밝고 산뜻한[陽明] 기상이 (조금도) 없으니 괴상한 일이다 ... (중략) ...⁴⁾

위 인용문은 1732년 7월에 연행한 進賀兼謝恩正使 李宜顯의 기록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사대부 관료인 그에게 서양의 道인 천주교는 몹시 거만하고 잘난 체 하지만 유교는 물론이고 불교, 仙敎 등과도 서로 배척되는 종교로 파악되었다. 또한 천주당 내 벽화의 현란한 색채나 日月星辰과 천사, 마귀 등의 그림은 불교 禪宗의 시왕전과 비슷한 음침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었을 뿐이다. 당시 이의현에게 비친 서양의 이미지는 무언가 거북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을 뿐이었다.

1791년 호남 珍山事件(廢祭焚主事件⁵⁾)으로 조정에서 연행사의 천주당 방문을 금하게 되면서, 19세기 이후에 저술된 대부분의 연행록에서는 천주당을 방문했다고는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이전의 연행록에 기

4) 이의현, <壬子燕行雜識> 《연행록전집》 제35책. 往見天主堂 堂卽西洋國人所創也 西洋之道 以事天爲主 不但與儒道背異 亦斥仙佛二道 自以爲高 康熙甚惑之 象天上 作是廟 中間毀壞 雍正又新創之 在所在數十武 不勞歷覽 故往賞之 入門便覺丹碧眩耀 目難定視 其是象天上者 故其高幾摩星漢 其畫日月星辰故也 壁上多畫陰鬼 有同禪房十王殿 見之幽闇 無陽明氣象 可怪也.

5) 원재연, 《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 한들출판사, 2003. 3, pp.157~200.

술된 천주당 벽화에 대한 부정적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톨릭과는 다른 동방정교회를 믿는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俄羅斯館을 방문한 연행사들이 그곳에 있는 러시아정교회 會堂(聖堂)도 '천주당'이라고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그 간막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主壁에 죽은 사람 하나를 걸어 놓았다. 대체로 벽 위에 십자로 된 나무판자를 붙이고 사람의 두상과 사지에 모두 쇠못을 박아 내걸어, 마치 車裂刑(사람의 사지를 수레에 매어 찢어 죽이는 형벌)의 형상이었고, 완전히 玉骨(피부가 흰 모양)인 사람이었다. 피부와 살, 손톱과 털이 꼭 산 사람과 같은데, 온몸이 나체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나, 머리에서 발까지 쇠못 자리에서 붉은 선혈이 쏟아져 뚝뚝 떨어지는데, 그 면목을 보니 방금 죽어 식지도 않은 것 같아 현기증이 나서 바로 보기 어려웠다. 또한 방안에는 침향, 단향 재목을 많이 사용하여 향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또 한 점의 바람도 들어오지 않아서 음습한 기운이 냄새가 되어 피비린내가 완연하니, 속이 매스꺼리고 울렁거리서 우연히 (이곳 천주당에) 오게 된 것이 후회스러웠다. … 천주당은 지극히 해괴하고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기로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날에는 정녕코 연경 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절대로 이런 관(=천주당)에 발을 들여 놓지 말도록 해야 하겠다.⁶⁾

예수의 십자가 受難苦痛을 표현한 매우 사실적인 벽화에 대해서 도

6) 1828년 진하사 李球의 일행으로 연행한 어는 醫員의 기록인 <赴燕日記> 往還日記. (六月)二十五日 癸巳 晴 朝往俄羅斯館 … 開其障 入于內間 主壁掛一死人 蓋壁上付十字木板 人頭上及四肢下釘揭之 若車裂之狀 宛然是玉骨人 皮肉爪髮 十分如生 通身赤裸 真假未分 而自頭至足 釘處選血紅鮮淋漓 而看其面目 若方未冷矣 眼猜神慘 殆難正視 且室中多沈檀用材香 久不泄 又點風不入 陰濕成臭 宛有血腥 惡心不能定 悔其偶到矣 … 天主堂 極駭慘 不可觸目 擬於東歸之日 丁寧付入京之人 愼勿令投迹于此館耳(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연행록선집> IX, 1976).

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조선 지식인의 눈에 아라사관의 정교회당 벽화는 보는 것조차도 대단한 고역이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매우 자극적인 표현이 19세기 초반 조선 사대부들의 천주당 소견을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衛正斥邪를 주창하며 천주교도 拔本塞源을 부르짖던 조정과 재야의 사대부 유학자들의 경우는 천주교에 대해서 대개가 이와 유사한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서양세력이 본격적으로 조선왕조의 경내로 진격해 들어와서 상호간 무력충돌이 일어났던 병인양요 전후에 조선 연행사의 서양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

황낭중의 필담으로 작일의 양구즈놈 슬픈괴색 연연하다.
비밀이 니른 말삼 귀국을 침노운운 … 양구즈일 동분하다
서양관이 여러이요 처치의 천주랑과 큰길예의 양구즈놈 눈
깔은 움속하고 사악이 편만히며 무상히 왕내하데 코마로느
L 웃둑하며 머리털은 발간거시 … 저러툇 슨람요물 슨
오육세 먹은 것시 슨람중즈아니로다 침노야국 되는
말가7)

위 한글고문 기록은 1866년 4월(음력) 북경에 進賀謝恩兼奏請使의 書狀官으로 연행한 洪淳學이, 북경에서 만난 서양인을 “洋狗子(서양개 xx)”로 표현하면서 쌍욕을 하고 있다. 또 서양인의 동양인과 다른 용모를 묘사하면서 사람의 종자가 아닌 妖物(요사스런 괴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국(조선)을 침략하다니 되는 말인가?”라고 분개하며 기록했다. 조국을 침략한 서양세력에 대한 언어를 통한 화풀이 내지 설욕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조선 사람들은 적국인 프랑스나 미국사람이 속한 西洋人 전체에 대해서 감정적인 차원의 직접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북경의 서양인들이 거주하던 천주당이 좋은 이미지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리

7) <연행록> 《연행록전집》 제87권, 동국대출판부, 2001, pp.174~176.

없고 서양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천주교가 결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2. 반서학적 흐름과 東學의 창도

19세기 조선사회에서 동학은 서학(천주교)과 마찬가지로 위정자들에 의해서 ‘邪學’이라고 불리어졌다.⁸⁾ 邪學이란 글자 그대로 ‘邪惡한 學問’이란 뜻으로 正學(바른 학문)으로 지칭되던 유학(성리학)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8~19세기 당시 조선왕조의 지배층들은 동학, 천주교 외에도 정감록, 비결, 미륵신앙 등을 모두 邪學으로 불렀고, 백성이 이들 학문을 못하도록 금령으로 단속했다. 이러한 사학들은 성리학적 사유형식과 그에 기초한 제반 사회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변혁적 지향성과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⁹⁾ 이러한 변혁사상으로서의 동학과 천주교는 모두가 민중들의 신앙결사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조정에서 파악하기로는 언제든지 황건적이나 백련교도와 같이 정부에 반란을 자행할 불순세력, 저항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동학은 지배층에 의해서 사악한 학문으로 낙인 찍혔으면서도 같은 부류로 취급된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 대결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 17세기 이래 조선사회에서 형성된 反西學的 흐름을 계승하여 서학이 서양 오랑캐의 학문이라고 배척하고 경멸했다. 물론 동학의 창도자인 水雲 최제우가 지은 동학경전들을 볼 때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서학, 즉 천주교를 경멸하고 하대할 것만은 아니어서 時運과 道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당시 세차게 융성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天道(하느님의 도)를 동학은 서학과 함께 공유한다고 생

8) 조 광, <조선후기 서학사상의 사회적 기능>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10. 2, p.3.

9) 조 광,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징 - 정학, 실학, 사학의 대립구도 ->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징》, 경인문화사, 2010. 7, pp.3~4.

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제우는 그 천도의 理는 다르다고 했다. 즉 같은 ‘천도’라고 하지만 그 교리체계는 천주교와 동학이 다르다는 것이었다.¹⁰⁾ 최제우는 서양세력의 동양침입에 대한 민족적 위기의식에 입각하여 이러한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학문인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 경신 4월에 이르러 천하가 혼란하고 민심이 효박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할 즈음에, 또한 괴이한 말이 세간에 요란하게 퍼져 이르기를, “서양 사람들은 道를 이루고 德을 세워 그 造化가 미치는 곳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무기로 공격하여 전투를 함에 그 앞에 맞설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중국이 멸망하면 (우리나라도) 어찌 입술이 없어지는 근심이 없겠는가? 이는 만 연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서양인들)은 道가 西道라고 칭하고, 學은 天主라고 칭하며 敎는 聖敎라고 하니, 이것은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말도 있었다(<論學文> 《東經大全》).

최제우는 西勢(서양세력)의 힘을 西學(천주교)과 西洋武力의 두 가지로 파악하면서도 서학이 무력보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다.¹¹⁾ 최제우는 서학이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았기 때문에, 天下로 여겼던 中國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서학의 창도자”보다 늦게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保國安民, 輔國安民하고 廣濟蒼生하기 위해서 東國의 종교인 동학, 東洋의 가르침인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다고 했다. 동학은, 당시 우리사회에 三政紊亂과 과거제의 不正, 賣官賣職과 苛斂誅求가 성행하는 사실 등을 통해서 볼 때 조선왕조가 이미 時運을 다했다고 보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널리 구제하고 외세의 침략에서 국토(동국)를 수

10) 신용하,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 《한국사》 37권, 국사편찬위원회, 2000. 12, pp.125~127.

11) 신용하, <위의 글>, 2000. 12, p.125.

호하기 위해서 東學을 창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860. 4. 5).

이처럼 동학의 창도자 최제우는 서학에 대한 대결의식에서 시운을 타고 무력을 보유한 서양의 학문처럼 조선 사람의 학문인 동학도 서학 못지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인 유교(성리학)와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불교는 이미 그 운이 다했다고 보고, 동학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했다. 동학의 창도자 최제우는 동학이 불교, 유교, 도교 등 조선의 전통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 적어도 천하인 중국을 압도하는 서학에 비견되는 時運과 도(=天道)를 갖춘 학문이라고 자부했다.

이르기를, 나의 도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전에도 듣지 못했던 일이지요, 지금도 비교할 자가 없고 예전에도 비교할 법이 없다.¹²⁾

꿈인지 생시인지 無極의 大道를 받아서 正心修身 한 후에 다시 앉아서 생각해보니, 우리 집안의 남은 慶事인지, 돌고도는 세상 이치(輪回之法)가 다시 돌아온 것인지 어찌하여 이다지도 망극한 것인지, 이전의 오랜 옛날과 이후의 무궁한 미래를 아무리 따져봐도 (나의 도와 같은) 글도 없으며, 말도 없을 것이라 … 유교와 불교의 여러 천년 運數가 역시 다했던지 輪回처럼 돌려서 다가온 운수를 내가 어찌 받았으며¹³⁾

나도 또한 이 세상에서 받은 하느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萬古에 없던 ‘끝없는 큰 가르침’(無極大道)을 비몽사몽간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아내어¹⁴⁾

12) <論學文> 《東經大全》. 曰吾道 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也.

13) <교훈가> 《용담유사》. 꿈일넌ᄃ 잠일넌ᄃ 무극되도 바다니야 정심수신 흥은 후의 다시 안즈 생각하니 우리 집안 여경인ᄃ 순환지리 회복인가 엇지 이리 망극호고 전만고 후만고를 력력히 생각히도 글도 업고 말도 업너 … 유도불도 누천련의 운이 역시 드히편ᄃ 윤회가치 돌넌 운수 너가 엇지 바다스며.

14) <도수사> 《용담유사》. 나도 쏘흔 이 세상의 턴은이 망극하야 만고 업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의 2대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그의 도는 無極大道로서 前萬古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後萬古에도 없는) 전혀 새롭고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은 이미 시운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유교, 불교, 도교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강력한 道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동학의 道는 西學의 道와 동일한 천도(天道, 하느님의 가르침)라는 점에서 19세기 중반 당시 천하를 호령하면서 중국을 제압하던 西道와 맞먹을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서도, 즉 천주교에 대한 대결의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이처럼 동학은 서학에 대한 대결의식 내지 대항의식을 그 創道의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이미 서학과는 다른 전통을 갖고 있던 불교, 유교, 도교 등에 대한 聯合意識 내지 同志意識도 갖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들 전통 종교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서학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한다.

내가 또한 東(東洋, 東邦, 東國)에서 태어났고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 道는 비록 天道이지만 學은 곧 東學(동양의 학문, 동방의 학문, 동국의 학문)이라, 하물며 땅이 東(동양)과 西(서양)로 나뉘어져 있으니 서양을 어찌 동양이라 하고 동양을 어찌 서양이라 하리오, 孔子는 魯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가르침을 (맹자의 고향인) 鄒나라에서 널리 뿔기에 鄒魯의 학풍이 오늘날의 세상에까지 널리 전하여 온다. (마찬가지로) 나의 도는 여기(이땅, 동국)에서 받아서 이곳에서 펼치니 어찌 가히 西學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¹⁵⁾

요망되고 사악하다 (나를 비판하는) 저 사람이여 어찌면 그렇게도 할 말이 없어서 (내가 하는 학문을) 서학이라고 칭

는 무극되도 여몽여각 바다너야.

15) <論學文> 《東經大全》. 吾亦生於東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謂東 東何爲西 孔子 生於魯風於鄒 鄒魯之風 傳遺於斯世 吾道 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하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떠드는 말이 “저 사악하고 망령된 놈이 서학에 빠져버렸도다” 하는 구나¹⁶⁾ … 소위 西學(천주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名人(이름난 사람) 없도다. (내가 어찌) 西學이라고 칭하고 나의 몸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이런 오명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초야에 묻혀 사는 것이 내 소원이기도 하다.

최제우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학문을 ‘西學’이라고 칭하는 것을 듣고, 그의 학문은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서학과 같을지는 모르나, 창도자의 출신지와 포교지가 엄연히 동국(우리나라)인데 어찌 서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고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의 학문을 “동학”으로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일명 ‘鄒魯之學’으로 불리는 儒學과 같은 동방(동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표명하고 있다.

최제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학(천주교) 하는 사람 중에는 이름난 선비가 없다고 단정하고, 동학은 無爲而化的 학문이라고 선언하였다. ‘무위이화’를 강조한 점에서 동학은 道敎와 같은 自然合一 내지 자연과의 親和를 그 특색으로 하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 동학은 한편으로 유교적 修養論 내지 修身齊家의 학문을 표방하기도 한다.

誠과 敬의 두 글자를 지켜서 차츰 학문을 닦는다면 그것이 바로 ‘無極大道’가 아니겠는가? 옳도다 그 때가 오면 道가 이루어지고 德이 세워질 것이다. … 修身齊家を 아니하고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진다면 말이 되겠는가? 三綱五倫을 다 버린다면 어디에서 賢人君子를 찾아볼 것인가? … 옛날부터 聖賢의 門徒들은 百家의 詩書를 다 외워서 淵源道統을 지켜

16) <안심가> 《용담유사》. 요약한 고 인물이 할 말이 바이 업서 서혹이라 이름하고 웬 동너 웬는 말이 스망년 저 인물이 서학의는 빗즈필가 … 소위 서혹 하는 스람 암만 봐도 명인 업디 서혹이라 이름하고 너 몸 발전허 렷던 그 초야의 무친 스람 너도 쏘흔 원이로다.

왔으니 孔子의 仁 도덕 가장 더욱 밝혀서 천년 후세에까지도 전하였으니 그 아니 기쁜 일인가? 나도 또한 이 세상의 무궁하고 큰 가르침인 동학을 닦아서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을 가르쳐서 삼칠자를 전해주니 그것이 바로 ‘無爲而化’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 어떤 사람이 君子가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저러한가? (군자가 되는 법은) 仁義禮智信인 줄을 알지도 못하는 멍청한 저 소견머리로 무엇을 알겠는가?¹⁷⁾

동학은 동양의 전통적인 가르침인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 중에서 좋은 점은 모두 취하여 유학의 三綱五倫과 五常(仁義禮智信)을 존중하며 수신제가의 방법으로 도를 닦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친화하는 ‘無爲而化’의 도교적 가르침을 표방하기도 한다. 또한 불교적 輪廻觀에 입각하여 운수란 윤회하는 것이고 서양의 학문인 西學이 주도하는 先天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東學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전통종교들이 득세하는 後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펼치기도 한다.

동학의 창도자 최제우는, “서학이 삼강오륜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또한 서학이 忠孝의 도리를 저버리는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갑 庚申年(1860년)에 전해오는 세상의 말이 “요망한 저 서양 도적들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을 높이 세우고 그들이 말하는 천주교를 천하에 퍼트리게 한다”고 하니 가소롭기가 창자가 끊어질 지경이라. … 무단히 하느님께 밤낮으로 비

17) <도수사> <응답유사>. 성경이썩 디켜니야 츠츠츠츠 닻가늬던 무극되도 안일넌가 시호시호 굿덕 오면 도성입덕 안일넌가 … 수신제가 아니하고 도성입덕 무어시며 삼강오륜 다 바리고 현인군주 무어시며 … 자고성현 문도드른 빅가시서 외와니야 연원도통 직혀너서 공부즈 어진 도덕 가장 더욱 발켜너야 천추의 견호오니 그 아니 것블소냐 너 역시 이 세상의 무극되도 닻가너야 오난 슝 효유히서 삼칠즈 견히드니 무위이화 안일넌가 … 엇던 슝 군즈 되고 엇던 슝 저러호고 인의예디신인 주를 망창호 저 소견의 무어설 아잔 말고.

는 말이 “33天 玉鏡臺에 내가 죽거든 가게 해주오” 하니, 우습구나 저 서학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죽은 후에 귀신(혼백)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조차도 안 지내고, 삼강오륜에서 벗어나서, (순교자를 본받아) “오로지 빨리 죽어 달라(惟願速死)”고 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부모도 없는 魂靈魂魄을 자신만은 갖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늘에 오르겠다는 말인가? 어리석은 소리 하지들 마라.¹⁸⁾

최제우는 천주교의 제사 폐지를 불효막심한 악행으로 규정하고, 자기 자신만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다고 도교에서 말하는 33천 중 옥황상제가 있다는 가장 높은 곳(옥경대)에 올라가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동학의 창도는 서학이 당시까지 조선의 지배적, 전통적 윤리질서의 핵심인 忠孝의 가치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삼강오륜의 전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창도되었다는 것이다.

최제우의 후계자 최시형은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남을 보고 서학의 유행을 조선(동국)에서 막는 것이야말로 서양의 무력 침공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서학을 비판하고 배척해야 할 이유로서, 우리나라를 외국에 팔아먹는 불충한 역적의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동학은 그 태동부터 서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한편으로 향후 도래할 망국의 후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천명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동학은 17세기 이후 유학자들에게서 형성된 반천주교적

18) <권학가> <<용담유사>>. ㅎ원갑 경신년의 전ㅎ오는 세상 말이 요망ㅎ은 서양적이 둥국을 침범ㅎ이서 텨둥당 노피 세워 거쇼위 ㅎ난 도를 텨ㅎ의 편만 ㅎ니 가쇼결창 안일넨가 … 무단이 ㅎ늘넨게 듀쇼간 비는 말이 삼십삼텨 옥경텨의 ㄴ 둥거든 가게 ㅎ소 우습다 저 스람은 저의 부모 둥은 ㅎ의 신도 업다 이릉ㅎ고 제스도츄 안 지넨며 오륜의 버셔너서 유원속스 무삼 일고 부모 업는 혼령혼빅 저는 엇디 유둥 잇셔 상텨ㅎ고 무엇ㅎ고 어린 소리 마라스라.

인 斥邪論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3. 동학운동의 전개와 서학과의 상호관계

19세기 중반 최제우가 당시 조선의 반서학적 사유체계를 종합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창도한 동학은 그 민중운동적 성격 때문에 지배층 유림, 사대부들로부터 잇따른 비판과 탄압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천주교와 다름없는 “사악한 가르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이처럼 지배층에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동학의 지도자들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는 애국충정의 사상은 계속 간직했고, 마침내 1894년 농민전쟁을 통하여 斥洋斥倭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외세(일본 제국주의)의 구축과 조선왕조의 변혁을 위해 전면적으로 봉기했다. 동학은 일본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청국의 제국주의적 속성과, 서세동점하는 서양제국까지도 반대했지만 그중에서도 일제에 대한 반감은 대단했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우리나라의 운수가 너무나도 불쌍하다. 예전의 임진왜란이 몇 해 전인가? 240년 전이 아닌가? ... 개 같은 왜적 놈이 예전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하러) 왔다가 (패하여) 돌아간 후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일도 할 줄 몰라서 젓가락만 사용하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고 있는지? 그 왜놈들은 원수로다. 만고충신 김덕령 의병장이 그때 벌써 살았다면 이런 일이 왜 있겠는가? 소인배들의 참소가 매우 험악하구나. ... 개같은 왜적놈들을, 하느님의 조화 능력으로 하룻 밤에 다 없애고자 ...¹⁹⁾

일제를 왜적, 개 같은 존재로 표현한 최제우의 반일사상은 1894년

19) <안심가> <<용담유사>>.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 ㄱ련하다 던세 임진 몇힐년고 이빅스십 안일년가 ... 기가튼 왜적놈이 전세 임진 왔다가서 술잔 일 못히다고 쇠술노 안 먹는 줄 세상 스람 뉘가 알꼬 그 역시 원수로다. 만고충신 김덕냥이 그썸 받서 스라스면 이런 일이 왜 잇슬고 소인참소 기험하다 ... 기가튼 왜적놈을 흐늘님께 조화 바다 일야의 멀흐고셔.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일제와의 전투를 통하여 그대로 관철되었다. 이와 같은 동학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조선의 천주교회를 지도하던 제8대 조선대목구장 뫼텔 주교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몇 해 전부터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이교적인 교파가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파의 추종자들은 특히 전라도에 많이 있습니다.²⁰⁾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생겨나서 그 전파로 정부를 불안케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교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합니다. 올해도 과연 서울과 8도가 이 空論家들의 음모로 불안에 싸였었는데 이들은 무엇보다도 大衆의 叛徒들입니다.²¹⁾

1890년대 초반, 뫼텔 주교가 파악한 東學은 다소 이상한 교리와 행동강령을 지닌 異敎的(가톨릭과는 다른 가르침을 내세운)인 교파인 동시에, 대중들과 연합하여 결성된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란세력이자 理想主義的 변혁세력이라는 것이다.

뫼텔 주교는 동학의 敎義가 매우 모호하지만, 유교경전 중 하나인 《易經》(주역)에서 많은 인용을 하고 있으며, 天主의 이름을 사용하고, 마술사와 같은 주문과 축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신도들은 모호한 교리를 거의 모른 채 다만 그 이름(동학)에 가탁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20)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뫼텔 주교의 1892년도 보고서’: 이 보고서의 원래 이름은 *Compte Rendu de la Société des M.E.P*로서 우리 말로 풀이하면 파리외방전교회의 年報(연례보고서)라고 번역된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에 파견된 파리외방전교회원들의 보고서가 연도별로 모두 집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조선에서 보낸 보고서만을 따로 편집하고 번역하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서울교구연보》 I, II 권으로 간행했다. 본고는 바로 이 역주본을 사용했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서울敎區年報》(I) 1873~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115).

2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뫼텔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1893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1873~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125.

이 교과서의 敎義에 대한 개념을 믿기는 꽤 어려운 일이며, 이 교과에서 발행한 서적을 내가 장만할 수 있었으나 아주 모호합니다. 이 교과서의 두목 중 한 사람이 예전에 천주교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모양입니다. 그 책들 중 하나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1861년에 천주교를 믿어야 할지 어떨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신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의 소원을 칭찬하면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의 천주교는 취하지 말고, 자기가 진리를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서 전파할 책임을 진 교리는 ‘동학’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합니다. 거기에 환상가의 공상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이 예언자에게 말한 천사가 빛의 천사가 아님은 아주 명백합니다. ‘천주’라는 이름과 천주교에서 빌어간 몇 가지 단편적인 진리에, 대개는 《역경》에서 끌어온,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상과, 이 책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술의 축문과 몇 가지 짧은 기도문도 들어 있습니다. 하기는 동학을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리를 절대 모르고, 다만 그 이름만이 그들의 가담의 표가 됩니다.²²⁾

뫼텔 주교는 1860년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대강의 사항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창도 과정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비교적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등에서 말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동학의 지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학이 창도되기 이전에 천주교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최제우가 그의 경전에서 창도과정을 설명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서학군’으로 지목했다던가, ‘天道’의 교리가 서학과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최제우 본인이 스스로 西學의 책을 보았다던가,

2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의 글>, 1984, p.126.

천주교도(서학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학을 배웠다던가 하는 말을 일체 남기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아서 천주교와 동학의 창도과정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동학 교리의 용어(천주, 한울님)나 天道에 대한 인식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할 때 최소한 간접적이거나 서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뤼텔 주교는 1882년 처음 동학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계속 관심을 갖고 수년간 그의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동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동학도들이 봉기하여 천주교 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1892년 12월에 그들 수천 명이 남쪽 도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공공연한 계획은 대거 서울로 올라가서 모든 외국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모자들은 확실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시골에서는 공포가 심했고 특히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파발꾼들이 내게 와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우리의 과멸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과장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²³⁾

지난 5월에 전라도의 여섯 고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의 착취에 진저리가 난 백성들이 東學徒들의 충동에 귀를 기울여 일제히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도들을 진압하라고 서울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반도들은 5월 31일 전주시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 주거를 정하고 있는 보두네(Baudounet) 신부는 늦지 않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제관은 부분적으로 약탈을 당했고, 거기 있던 신학생 중의 한 사람은 동학군이 쏜 총탄으로 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 동학군들은 2, 3백 명씩 떼를 지어 도내에 퍼져서 전

2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의 글>, 1984, p.126.

보다 더 심하게 그 지방 사람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새 당원들을 가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 교우들만이 양심의 본분으로 인해서 당원으로 가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반도들은 교우들을 가장 큰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교우들은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의 동네를 떠나 추수할 곡식을 버리고 산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전라도의 세 선교사들 자신도 매우 위협을 느꼈습니다. … 본인은 대부분의 선교사를 서울로 불러 올려야 했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은 도중에 심각한 위협을 겪었습니다. 교우들은 약탈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산골로 피신을 하거나 멀리 도망가야 했습니다.²⁴⁾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본격화된 1894년, 마침내 동학도의 서학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음이 뤼텔 주교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된다. 천주교도들은 동학에 가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동학도들의 원수가 되었고, 때문에 약탈과 방화, 파괴와 살상이 가해졌다. 1894년 전라도에서 사목하다가 서울로 상경 중이던 조조 신부는 동학도와 청군의 연합세력에 의해 공주 부근에서 피살되었다. 이처럼 다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살상, 약탈 등을 당했지만, 동학도들 중에는 가급적 평화적인 설득과 다소간의 협박 등을 사용할 뿐 가능한 무력(폭행)을 절제하는 모습들도 눈에 띈다. 다음의 몇몇 사례가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

늙은 부인, 젊은 색시, 나이 어린 처녀가 사형 집행자들과 그들의 형벌을 비웃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데려가실 수 있도록 빨리 머리를 잘라 달라(斬首하라)고 재촉하며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 더구나 연약한

2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뫼텔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1894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1873~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158.

여성들이 이러한 미덕을 보여줄 때,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동학군들도 이 신앙고백자들의 용기와 대담함을 거듭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문을 받고 있던 한 늙은 여교우는 생명을 구해줄 테니 배교하라는 강요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다. 비겁한 말 한 마디로 근 70여 년간 애써 쌓아온 결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천만번이라도 죽는 편이 낫다” 그러자 이 싸움에 지친 망나니 두목은 그의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 부인이야말로 하느님을 마음으로부터 흠송하는 자가 아닌가? 그녀의 포승을 풀어주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더 이상 강요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이니까”²⁵⁾

이처럼 동학농민군은 서학도들을 잡아서 서학을 포기하고 동학을 믿을 것을 강요했지만, 서학도들 중에는 완강하게 버티는 신자들도 더러 있었고 그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이 경우 농민군들은 더 이상의 무력을 쓰지 않고 관대하게 석방하는 아량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편 뫼텔 주교의 1895년도 보고에 의하면 동학도에게 잡혀서 배교를 강요당한 천주교 신자 2,000명 중에서 단 15명(0.75%)만이 배교했다고 한다.²⁶⁾

9월 말경에 40명의 동학도들이 회장 최 필립보를 잡으러 압실(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수직리) 마을로 갔습니다. 선량한 최 회장은 애꾸눈이었지만 두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하느님의 일을 더 잘 보았습니다. ... 두 명의 동학군이 달려들어 그를 묶고 그의 상투를 벗기고 사형 선고자에게 하는 것처럼

2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뫼텔주교가 과외외방전교회에 보낸 1895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1873~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172.

26) “이에 의하면, 신앙고백을 강요당하고 박해받았던 신자들 약 2,000명 중에 단 15명만이 배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두명은 매우 한심한 상태였지만, 나머지는 나약한 말 때문이었을 뿐, 곧 자발적인 통회보속으로 속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위의 글>, 1984, p.172)

변소에 다녀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준비 후에 그들은 회장에 게 총을 겨누고 천주교를 버리고 동학을 믿으라고 재촉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죽이시오, 하지만 천주교를 버리고 동학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소. 나는 죽어도 천주님을 따르겠소”. 그들은 그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를 몹시 때린 후에 그들은 “이만 하면 됐다. 가자, 필요하면 다시 오자. 아마도 다음에는 이 자가 양순해지지 않겠지?”하고 말했습니다.²⁷⁾

(전라도) 興德의 신자 이씨는 무섭게 얻어맞은 후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폭도들은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火刑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열렬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사형자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이미 불길에 일어 그의 옷에 옮겨 붙었을 때 다른 동료들보다 다소 인정 있는 동학군 한 명이 그를 화형대 위에서 끌어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그 신자는 기막힌 학대에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으나 평생 불구의 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²⁸⁾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전라도 전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천주교도들에 대한 동학도의 괴롭힘과 협박, 배교 강요 다소간의 폭력 사용 등이 횡횡했고 재산은 약탈당했지만, 대개의 경우 목숨만은 함부로 빼앗지 않았는데, 이같은 사정은 아마도 같은 同胞意識 내지 학정(탐관오리)에 시달리는 민중으로서 同類意識 등이 작용한 것도 있겠고, 동학의 교리가 人乃天, 事人如天 등 人權을 존중하고 人命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

27) <갯등이 선교사 알릭스 신부의 1894~1895년도 보고서> 《뫼텔문서》 1895-1896; 《천주교 왕림(갯등이) 교회 본당설립 100주년 기념집》(I), 천주교 왕림교회, 1990. 5, p.89.

2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뫼텔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1895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I) 1873~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175.

을 創道 이래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에서도 말미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맺음말 : 서학에서 본 동학의 창도와 운동의 전개과정

17세기 이래 연행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북경에서 도입된 서학 西學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부터 斥邪論的 관점에서 천주교의 논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반천주교 내지 반서학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본격적인 박해기에 들어서면서, 천주교회가 때때로 민족의 안위나 국가의 보존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는 교회와 신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으로 민중들에게 보여졌을 때 더욱 그 비판과 부정의 강도는 강화되어 갔다.

동학은 1860년 최제우가 창도할 때부터 서학(천주교)에 대한 대항의식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天道로서 같다”, “天主라는 명칭이 동일하다”, “興盛할 時運을 타고 났다”던가 하는 점에서 동학은 서학을 일면 긍정하면서, 함부로 경멸하지 않았다. 그러나 忠孝의 관점에서 三綱五倫을 배신한다고 보여 지는 천주교의 제사거부와 같은 행위 등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날선 비판의 대상이었고, 더군다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두 차례나 천주교도가 관여되어 있는 서양세력의 조선침공을 목격하고서는 천주교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화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는 천주교도에 대한 공개적인 체포와 학대, 배교 강요, 폭행, 재산 약탈 등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輔國安民의 기치를 내세우는 忠君愛國의 가르침임을 자부했던 동학도들은 양반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학대받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同類意識)과 同胞意識 등이 발휘되어서 함부로 학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人權을 존중하고 일찍부터 인명(人命)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동학의 지도자들이 교도들에게 설파해

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구한말 천주교 집단들에서도 포수를 중심으로 한 民保軍 내지 의군 義軍이라는 자체 방위군이 조직되어, 동학도들과 전투를 벌여 동학도들이 폐퇴한 경우도 종종 보인다. 안중근의 부친 개화와 안태훈 진사가 이끈 황해도 신천 청계동의 민보군이 같은 황해도의 동학 집주 김구의 부대를 격퇴시키고, 결국 김구가 안태훈의 집안에 문객으로 들어가서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동시대 우리 민족의 共同敵인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독립군)으로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은 구한말, 동학과 천주교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면서도 보국안민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서히 하나의 통일된 민족운동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한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천주교회의 교단을 대표하는 뮌텔 주교 등 프랑스 선교사들은 친일적 경향을 노골적으로 표시했고, 그래서 안중근 등 애국항쟁을 주도했던 신자들은 교회에서 축출되었다. 동학도들도 1904~5년을 기점으로 시천교 등 어용친일 단체로 변질된 부류도 있었지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의암 손병희를 추종한 천도교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일정 부분 일제 식민통치에 비판적인 민족주의 세력으로 남아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 근대사에서 동학과 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에 향후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던 내용들을 사실적·구체적으로 연구하기를 바란다. 본고는 동학과 서학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검토를 위한 초보적 작업에 불과했지만, 이런 목적의식에서 서술된 것이다.

[논문접수: 2013. 11. 4, 심사시작: 2013. 11. 16, 심사완료: 2013. 12. 3]

주제어 : 서학(천주교), 東學, 斥邪論, 人權

【참고문헌】

- 《연행록전집》 제1~100권(임기중 편, 동국대출판부, 2001)
- 《한국천주교회사》상, 중, 하(달레 원저, 최석우, 안응렬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1982
- 《서울敎區年報》(I) 1873~1903(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명동천주교회 발행, 1984)
- 《뫼텔주교일기》 II(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1993)
- 《천주교 왕립(갓등이) 교회 본당설립 100주년 기념집(I)》(천주교 왕립교회, 1990. 5)
- 《東經大全》/《용담유사》 윤석산 편저, 《동학경전》(2009, 동학사)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8집(민중의 함성, 동학농민전쟁) (한길사, 2003)
- 배영순, <동학과 서학의 차별성 문제 運則一道則同 理則非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73집(2003)
- 윤순갑, <서구의 충격과 외압에 대한 발상의 제형태- 한말의 사상적 상황을 중심으로 ->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2호(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3)
- 김기선 저, 《왜란과 동학》(정민사, 2010)
- 이원순, <한말의 교안과 교민조약> 《한국천주교회사연구》(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 조 광, <조선후기 평등의식의 성장>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경인문화사, 2010)
- 조 광, <조선후기 서학사상의 사회적 기능>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의 기초》(경인문화사, 2010. 2)
- 조 광,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징-정학, 실학, 사학의 대립 구도->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징》(경인문화사, 2010. 7, 경인문화사)
- 노길명, <개회기의 교회와 국가> 《민족사와 천주교회》 한국교회사

연구소, 2005

박찬식, <구한말 전라도 지도지방의 교안> 《국사관논총》 58집(국사
편찬위원회, 1994)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2000. 8,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원재연, 《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한들출판사, 2003. 3)

차기진, 《조선후기 서학과 척사론 연구》(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신용하,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 《한국사》 37권(국사편찬위원회,
2000. 12)

노대환, <19세기 중반 金致振의 斥邪論> 《대구사학》 84집(대구사학
회, 2006. 8)

<ABSTRACT>

Western powers advancing toward East Asia and founding of Eastern learning Dong-Hag

Won, Jae-youn

From its birth, Dong-Hag(東學), Eastern learning founded by Choi Je-woo in 1861 at Gyeong-joo in Choseon dynasty, has been Opposite consciousness against Catholicism so called Western learning. So it has naturally confederative awareness with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s traditional religions in Choseon dynasty, but it has antagonism against Catholicism advancing East Asia with powerful military force. Choi Shi-hyeong, the second highest leader of Dong-Hag thought that to stopping prevalence of Catholicism is more important than to depending western invasion against Choseon dynasty in mid-19th centuries. He regard that is more fundamental and more immediate than this, because of his anger against Catholicism betrayed homeland Choseon. During the military struggle in 1894 in Choseon, some Catholics were murdered, plundered by peasant army followers of Dong-Hag. Though they usually offered Catholics insult or threatened with death without apostatizing Catholicism, but restrained from slaying Catholics mercilessly. It was partially because that they have "together spirit" with Catholics, owing to suffering from ruling class, and partially because their leader stressed always human right towarded poor people.

Key words : Catholicism, Dong-Hag(東學), Anti-catholicism, human right